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130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1,1-45)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1,1-45

오늘 복음에서는 사순시기 복음의 절정인 라자로의 부활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순시기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강도 있게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빵이나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참된 말씀과 행복을(사순 제1주),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영적 변화의 모습을(제2주),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사순 제3주),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제4주),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제5주). 우리는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죽음조차 극복할 힘과 능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 먼 사람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일류대학 뱃지를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일류 대학에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큰 애국자인 것 마냥 정부와 군인들과 재벌들을 비판하고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살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기희생이나 성찰이 없는 무조건적 비판과 외침에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고, 술과 욕설과 비판으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절제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남을 비판하며 스스로는 선행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바리사이처럼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로마서2,1-7참조). 다행히 저는 저의 심각한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고,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념보다도 하느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면에 앞서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기도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루 3-5시간씩 약 40여일을 열심히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한 끝에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절제력을 회복하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함께 성경과 기도와 찬양 공부를 했던 당시의 젊은이들이 거의 모두 이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널리 전하고자 '젊은이 대학생 기도모임'을 만들어 수많은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소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이번 사순시기와 부활시기를 통하여 이처럼 생생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멘.

(수원교구 4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오바드야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예언자 활동 시기
기원전 5세기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로 추정됩니다.

선포 내용
오바드야는 에돔의 지혜가 갖는 이기적 한계와 이에 따른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와 정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하느님은 포악함과 불의를 거부하시며 약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구원과 해방의 하느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바드야서의 구성
1. 에돔에 내린 선고(1-15절)
2. 시온에 자리 잡은 유다에 대한 신탁(16-18절)
3. 이스라엘의 회복(19-21절)

오바드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전체 2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언자 개인에 대한 어떠한 서술이나 설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바드야의 환시.”(1절)라는 머리글을 통해 예언자의 이름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또한 시대 배경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1-1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의 다른 곳(참조: 시편 137,7; 애가4,21-22; 에제 25,12-14; 35,5-15)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그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들은 모두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대환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드야서는 바로 이 재앙을 배경으로 씌었습니다. 집필 목적은 절망의 나락에 따진 유다인들을 위로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예수 부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산호세 천주교 공동체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부활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23일 부활 세례식에서 주님의 귀한 양으로 태어나는 새 교우들의 굳건하고 끊임없는 믿음 성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14,15-21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곁에 같이 계셔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과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고 같이 나눠봅시다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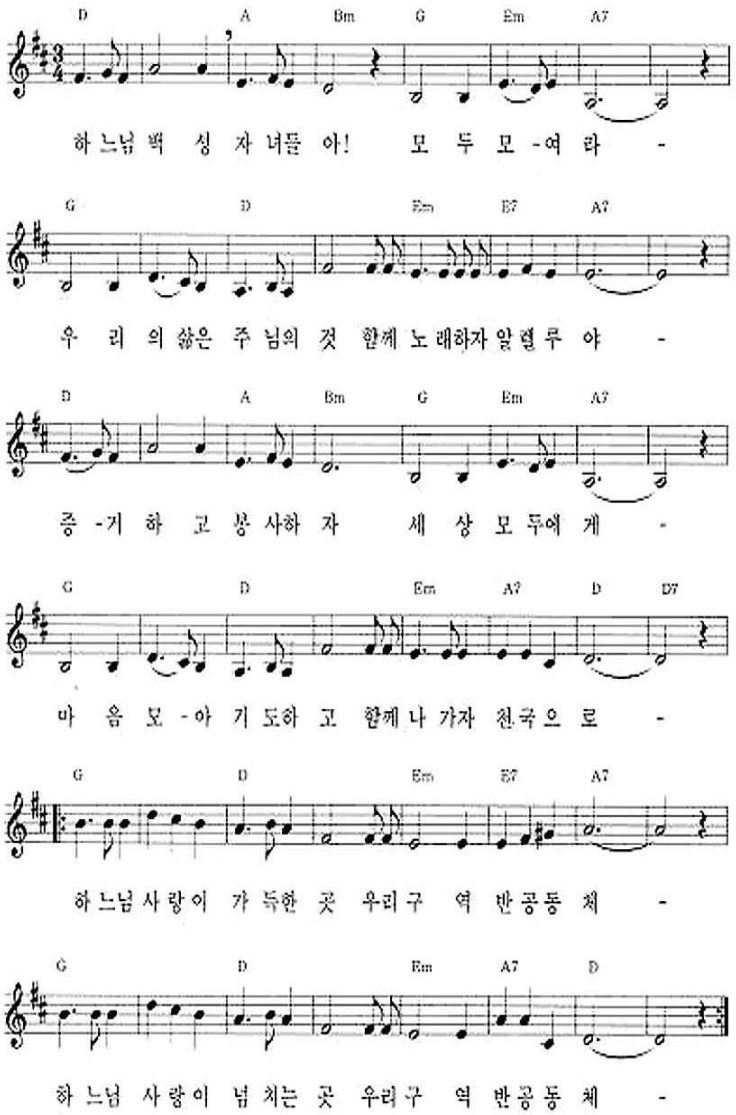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